



한울림 교회

방송 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9월의기도

찬 양*

기도인도

봉헌특송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 도*

주 일 예 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김은희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환우를 위한 기도

면류관 벗어나서(찬 25)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선한 능력으로

예수는 내 힘이요

주의 은혜라

사도행전 20:7-12

주는 피난처

“삼층에서 떨어졌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찬 481)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0월의 기도는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환우를 위한 어떤 기도제목들이라도 교역자에게 전달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번 토요일(10/9) 새벽기도회는 “**온가족새벽예배**”로 드립니다.
4. 공천위원회가 오늘(10/3) 예배 후에 지하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5. **삼공부 “생명의삶”**이 오늘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6.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월~토” 영상새벽기도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101.5 / HD Radio FM 93.5-4 토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 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석받이’ 인가 ‘참된 신앙인’인가

16세기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던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면죄부일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교회의 타락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지적한 것도 면죄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고 면죄부를 구입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데, 산 자의 죄는 물론이고 죽은 자의 죄도 용서함 받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베드로성당을 건축하느라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가 말도 안되는 것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영어로 indulgence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면죄부란 뜻 말고도 ‘응석을 받아줌, 관용’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 형태인 indulge는 ‘응석을 받아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는 다르게 말하면, 영터리 신앙인의 응석을 받아주는 표란 뜻이 됩니다.

면죄부를 강력히 비판한 마틴 루터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밤에 길을 가다가 길에 누워있는 취객을 발견했습니다. 루터가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살면 위험하다고 말했더니, 그는 “괜찮아요. 나는 면죄부가 있으니까” 라고 대꾸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와 사제들은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제도로 만들어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서민들은 읽을 수도 없었고, 사제들 중에서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서 사람들은 영터리 신앙의 “응석받이”가 되어 갔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개혁자로서 마틴 루터는 독일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로 인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독일사람들은 카톨릭교회가 성경과 위배되는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깨닫고 루터의 개혁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석받이”에서 “개혁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개혁된 성도”가 시작한 개혁교회가 바로 우리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성경책은 많이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성경말씀과 연관성 없는 신앙인이 되어가며, “개혁된 성도”에서 “응석받이”로 퇴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